

2008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경희대학교

2008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2008년 2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Contents

발간에 즈음하여 2

I. 학문과 평화: 대학발전의 새로운 지평

1. 학문적 권위의 재건 6
연구역량 강화: 석학·석좌 교수제 강화 6
기초교육의 재인식: 고등교육의 뉴 패러다임 8
2. 소통의 학문세계 10
교육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학제 간 연구' 10
세계화의 교두보, 국제캠퍼스 11
3. 화합과 창조 미래사회 14
대학문화의 새로운 전환점, 창학 60주년 14
대학의 또 다른 정체성, 사회공헌 16
'의과학(Medical Science) 경희'의 사명, 인류 복리 21

II. 제2 도약의 두 기반: 자율 운영과 캠퍼스 인프라

1.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 26
발전 계획, 예산, 운영 분권화 26
대학행정의 전문성 강화 29
평가와 보상·지원 체계 합리화 30
2. 최적의 연구·교육 인프라 31
다시 태어나는 캠퍼스 31

III. 미래로, 세계로: 창조하며 전진하는 경희

1. 함께 열어가는 경희의 미래 36
2. 세계적인 온라인 교육·연구·실천 네트워크 <경희글로벌스튜디오> 44
3. 행정·복지 부문 선진화, 경희의 세계화 구상 45
4. 미래 학문 선도할 프로젝트 <창조21> 46

부록

1. 총장 365일 48
2. 통계로 본 경희 2007 50
3. 경희대학교 조직도 52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는 대학. 설립정신 “文化世界의 創造”와 함께 경희가 쌓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지난 반세기 여 경희는 연구, 교육,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모색하며 보다 나은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함께 경희는 지난 59년 간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 종합적인 학문의 요람을 이룩했습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예체능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유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동서의학의 창조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제3 의학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대학의 또 다른 사명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인류애 증진과 세계평화를 도모하면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창설, ‘UN세계평화의 날과 해’(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and Year of Peace) 제정, ‘세계평화대백과사전’(World Encyclopedia of Peace) 발간, ‘1999서울NGO세계대회’(1999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개최, 유엔평화공원(UN Peace Park) 및 ‘글로벌 NGO 센터’(Global NGO Complex) 건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경희는 그간의 업적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궁극적 목표는 “학문과 평화”의 진작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진취적인 경희정신과 함께 21세기 대학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희는 세 가지 목표를 구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학문적 권위의 재건”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낼 힘의 원천이 바로 지식과 학문의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창조를 이끌며 보다 나은 미래를 주도해야 할 지식과 학문이 사회변화와 시대흐름에 좌우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희는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역사창조를 선도하는 학문세계의 자긍심을 회복해 대학사회 본연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소통의 학문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창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창조의 원인을 포괄하고 종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변화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야 합니다. 지구촌 인류사회가 희망하는 사회적 처방과 당위를 일궈내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종합하고, 삶의 본질과 요청을 연계하는 학문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학문과 학문, 학문과 현실, 학문과 실천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전제돼야 이러한 필요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경희는 ‘소통학문’, ‘융합지식’, ‘실천창조’를 모색하면서 학문세계의 진취적인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21세기 새로운 문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희는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차이를 극복할 때만이 진정한 학문발전과 사회창조가 가능합니다. 경계는 소통과 화합을 지연하고, 소통과 화합의 지연은 보다 나은 미래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차이를 인정하며 학문과 현실, 실천 간의 교류와 화합을 주선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경희는 경계와 차이의 벽을 넘어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선도할 대학운영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소명과 함께 출간된 <목련리포트>는 경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한 정책 단상을 담아 낼 연례보고서 (Presidential Annual Report)입니다.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대학운영의 보다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시대, 우리 대학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작은 책자의 바람입니다. 대학은 사회변화의 힘입니다. 학문 없는 미래창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미래 학문, 대학혁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21세기 ‘학문과 평화’, ‘미래창조의 길’을 모색하는 ‘경희의 실험’이 그 가능성의 또 다른 열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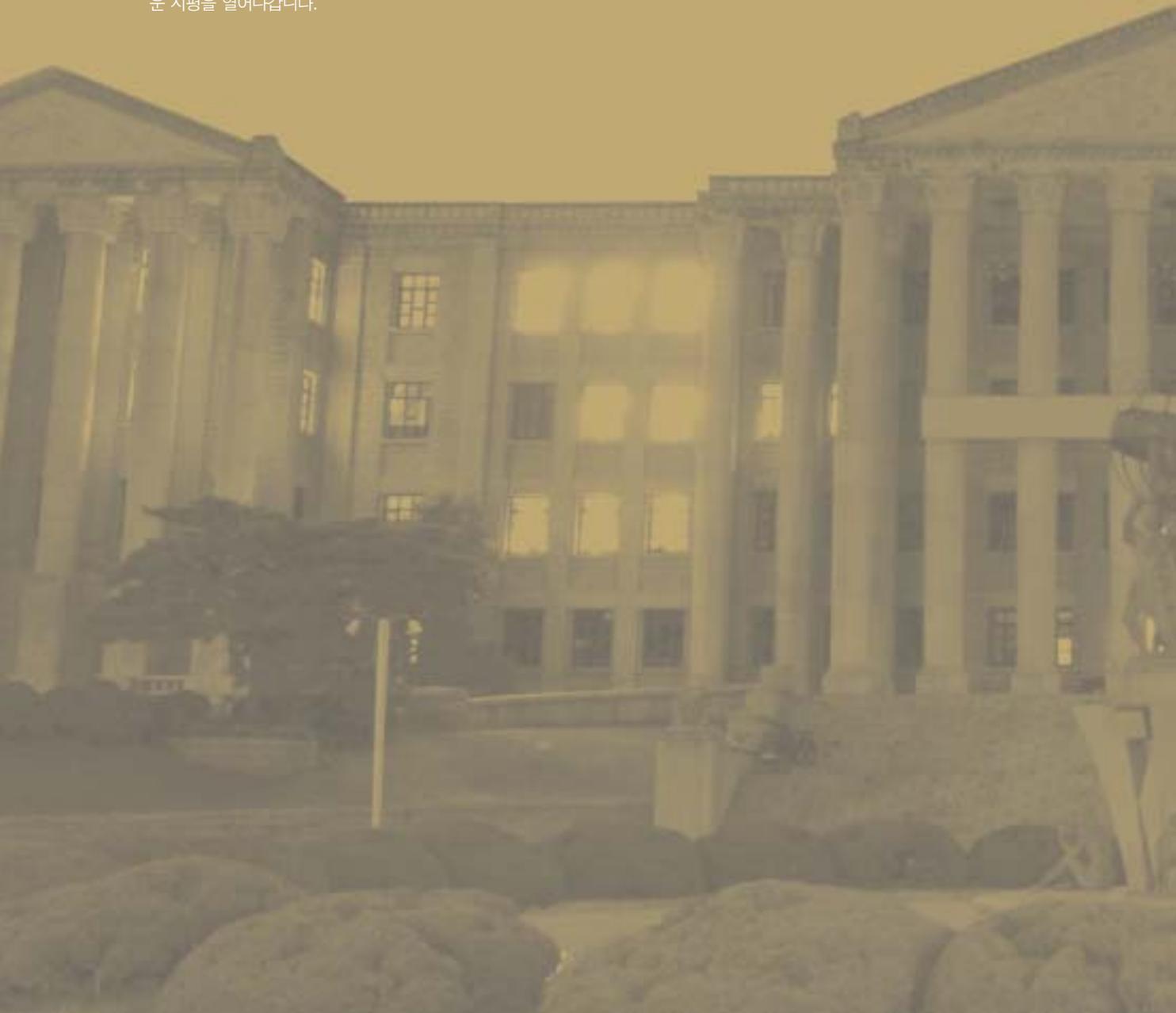
2008년 2월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학문과 평화

대학발전의 새로운 지평

'학문과 평화'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온 경희가 창학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적을 바탕으로 경희는 21세기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합니다. 학문적 권위를 재건하고 소통의 학문 세계를 구축하면서, 미래창조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연구, 교육,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대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갑니다.







학문적 권위를 재건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를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대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문 외적 논리가 대학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학문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고, 대학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 합니다. 학문이 학문답고 대학이 대학다워야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명문대학은 연구 중심대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문적 권위와 대학의 시대적 소명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 석학·석좌 교수제 강화

우수교원초빙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탁월한 교수진, 최적의 연구 환경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학문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고 인류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석좌·석학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우수교원초빙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총장·자문위원회·추천위원회·단과대학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최고의 학자를 초빙하는 제도입니다.

석학·석좌교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총장, 추천위원회, 단과대 추천소위원회에서 각각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다음,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석학·석좌교수는 연구우수교원, 승진 및

업적 평가 등 신설 혹은 개선되는 정책과 아울러 경희의 연구역량을 심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2007년, 장진 교수(정보디스플레이학과), 오태환 교수(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를 석학·석좌교수로 초빙해 총 4명의 석학·석좌 교수가 활동 중이고, 2008학년도 1학기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우수교원을 선발했습니다

경희 교수진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취를 고양하기 위해 연구우수교원(Kyung Hee Fellow)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탁월한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교수의 2%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연구우수교원은 우수교원초빙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에 선정, 다음 해 2월 임명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합니다. 연간 3천만 원의 연구격려금을 지급하고, 강의 책임시수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매년 10명의 교원을 신규로 선발해, 매년 20명의 연구우수교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2007학년도에는 경제학부 김정유 교수, 약학대학 김동현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2008년에는 6명, 2009년에는 10명을 임명해, 2010년부터 매년 20명의 연구우수교수가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Kyung Hee Global Eminent Scholar' 제도 도입

세계적 지성과 실천가를 초빙해 경희의 지구적·문명사적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경희의 역사이자 미래인 '학문과 평화'를 테마로 연구·교육·실천이 결합하는 새로운 학술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경희가 지향하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모색해 갈 것입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해 문화예술, 우주 및 기초 자연과학, 의·생명 과학, 지구적 실천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쌓아온 지성과 실천가가 Kyung Hee Global Eminent Scholar로 초빙되어 강좌와 세미나, 특강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이들의 활동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 및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룩한 업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 대학과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승진 및 업적평가제를 개선, 2008년 9월부터 시행

연구의 창조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진 및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역량전문위원회가 발족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진, 조기 승진, 교수 특성화군 및 강의 시수, 교수업적평가, 다양한 보상 체계, 강의우수교수 시상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2008년 1학기까지 완비하고 2008학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초교육의 재인식: 고등교육의 뉴 패러다임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상업적 생산성’은 더 이상 대학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해외 명문대학은 물론 국내 주요 대학들도 대학교육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양교육 과정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경희 교양과정’(Kyung Hee LUX Humanitas College System)을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교양과정은 건학 정신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래 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문화인’은 문화 예술적인 소양과 윤리적 덕목을 가진 인재이며, ‘세계인’은 세계시민 의식과 미래 전망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창조인’은 성찰적 사유와 상상력, 실천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말합니다. 이 같은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교양, 통합교양, 전공교양으로 교육과정을 세분하여, 학생들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주체적으로 지식을 선별·종합하고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는 창의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2008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을 심의 확정했고, 10월에는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신규 과목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전문 교육기관 - ‘학부대학’ 신설

교양교육과정 개편이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 2008년에 신설될 글로벌 수준의 학부대학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학부대학은 경희의 창학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전문 교양인은 네 가지 자질, 즉 평화세계 구현에 기여하는 박애인(Eminence), 융합적 시야를 갖춘 교양인(Neo-Renaissance), 학문적 수월성을 지닌 전문인(Excellence),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Leadership)를 아우르는 새로운 인간형을 가리킵니다.

학부대학은 일반적인 교양학부나 국내의 기초대학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대학으로, 동서의과학부·자율전공학부·교양교직과·글로벌인재교육원 등의 체제로 구성, 운영됩니다. 동서의과학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위한 준비 교육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약학 계열 학과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 경희가 그간 다져온 역

량을 집약한 특성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신입생들이 일정 기간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파악한 다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부입니다.

학부대학은 기초와 전공교양을 잇는 가교로서 융합 교과목 13개를 신설하여, 비판적 사고와 통찰력, 창의력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융합 과목은 2008년 1년 동안 2007학번 이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9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것입니다.

경희의 뉴 브랜드-- '몰입형 기숙프로그램'

21세기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선구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캠퍼스에 '몰입형 기숙프로그램' (Immersion Residential Program)을 실시합니다. 학부대학과 더불어 경희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교육 과정과 학습 문화, 신명나는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입생 전원이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율과 화합의 사회성을 체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효율적인 '경희학습공동체'를 일구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캠퍼스에 2,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기숙사를 민자유치를 통해 2007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몰입형 기숙프로그램은 Global, Competent, Creative(GCC) 차원을 결합하는 진취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캠퍼스 내에 영어 등 외국어만을 사용하는 인터내셔널 존(International Zone)을 설치해 어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9 to 5'의 강의시스템을 유비쿼터스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예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규 과목, 지도교수 및 멘토 시스템, 각종 사회봉사과 자치활동 등을 마련해 지·덕·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은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場)입니다.

몰입형 기숙프로그램은 2008학년도 1학기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 기초교양과정과의 연계, 멘토 시스템, 유비쿼터스 학습 시스템(U-Learning System) 등 1단계 사업이 시행되고, 2011년이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연구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교수의 교육 능력 제고는 대학 본연의 임무이며,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경희는 교육수월성위원회를 발족하고 2008년 1월 관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6개월 간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조사하고, 창조적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문화 및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강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강의 교수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나 서울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학습공동체 모델도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2008년 여름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소통의 학문세계를 전개합니다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해석하고 새로운 보편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학문 사이의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학문과 학문이 서로 교류하고, 학문과 사회가 소통할 때, 인간과 학문의 왜소함과 편협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문 간 대화와 협력에 의해 온축되는 융합지식은 인간과 자연, 공동체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세계화, 학제 간 연구, 산학 협력, 융합 지식과 실천 등으로 대표되는 '소통의 학문 세계'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경희의 세계화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교육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학제간 연구'

산학연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산학연협력은 21세기 대학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교 우위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학제 간 융합연구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산학연협력은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성과가 교육과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는 창의정신 분야, 생명과학 및 정보통신과 같은 국가지정 연구센터 분야, 정보디스플레이와 같은 산학협력 비교우위 분야, 동서의료공학과 같은 제3의학 창출 연계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제캠퍼스 연구 복합단지에 세워지는 산학협력관은 이 분야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의생명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경희는 국제캠퍼스에 세계적 수준의 의생명과학 국제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의생명 과학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동서의학·생명과학·의과학·동서의료공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경희의료네트워크는 제3의학을 개척하는 세계적인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의생명과학 국제클러스터는 연구와 교육 이외에도 해외 주요 관련기관과 국제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지역과 국제 봉사를 실천하는 협력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의생명과학 국제클러스터는 산학연협력 및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의생명과학원을 설립하고 임상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의학의 메카, 동서신의학

1965년 동양의과대학을 인수 합병한 이래 경희는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을 연이어 설립해 국내 유일의 의과학 종합교육연구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동서 의학을 융합한 제3의 의학, '동서신의학'을 창안하고 학제 간 연구와 융합지식 창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석과 해부에 능한 서양 의학과 예방과 종합 진료에 강한 한의학이 만나 의학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6년 6월 설립된 신개념의 양한방 협진 종합병원 동서신의학병원은 치료의 중심일 뿐 아니라, 동서신의학 발전을 위한 학제 간 연구와 핵심 인재 교육의 산실입니다. 학제 간 연구와 융합지식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와 1개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2007년 골관절 치료 신약 OAH34B를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고, 인천경제자유특구청(IFEZ)와 국제적인 통합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계화의 교두보,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변화. 이는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닙니다. 국제캠퍼스라는 새 명칭은 연구와 교육, 실천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상징합니다. "Global Mind, Global Reach"의 선언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라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21세기 대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새로운 대학을 의미합니다.

2005년 9월 캠퍼스 명칭 변경을 위한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명칭 공모와 구성원들의 동의, 추진위원회, 총학생회 주관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18일 국제캠퍼스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2008학년도 1학기부터 1단계가 시행되는 몰입형 기숙프로그램이 국제캠퍼스의 비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캠퍼스는 명칭변경과 비전 선포를 통해 경희의 역사이자 미래인 '학문과 평화'의 세계화, 소통의 학문세계를 실현하는 산실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적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는 크게 3가지 성격의 단지로 구획됩니다. 연구복합단지에는 세계적 수준의 의생명과학 클러스터, 경희의료원과 동서신의학병원에 이은 제3의료원, 산학협력력 사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관이 들어섭니다. 국제문화교류단지는 UN 평화공원, 글로벌 NGO 센터, 박물관 및 전시관, 공연예술시설 등이 자리합니다. 종합체육시설단지에는 종합체육관, 운동장, 골프장 등이 건설됩니다.

'Penn-Kyung Hee Collaborative'가 정착되었습니다

'Penn-Kyung Hee Collaborative'는 2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의 명문사학 펜실베이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과 창학 60주년을 앞둔 경희가 학문의 지구적 책임 구현이라는 취지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6년 여름 처음 개설했습니다. 2007년에는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주제 아래 21개 강좌를 개설하고 '한류의 날', '서울 워킹 투어' 같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병행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9명, 경희대 10명 이외에 베이징대, 동경대, 모스크바국립대, UN 경제사회국(DESA) 등에서 모두 24명의 교수진이 국내 학생 363명, 해외 학생 161명 등 총 524명의 참가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06년에 견주어, 개설 과목과 수강생이 크게 늘었고, 특히 해외 학생수가 32개국에서 161명이 참가해 전년도에 비해 여섯 배 이상, 전체 학생수는 524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는 수강생의 약 87%가 동료·후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2007 'Penn-Kyung Hee 여름학기' 강좌 가운데 두 과목을 콘텐츠화하여 경희사이버대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제적 교육 협력(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희만의 세계화 교육·실천 인프라 : UN 및 국제 NGO 인턴십

경희가 보유하고 있는 UN 및 국제 NGO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새로운 보편 가치와 미래에 대한 창조적 통찰을 세계 무대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경희만의 세계화 교육·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턴십은 UN 공보국(DPI), UN 경제사회국(DESA) 등 UN 각 부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운영하는데, 선발된 학생들에게 네오르네상스문명원이 주관하는 '네오르네상스장학'의 사회기여 장학금을 지금해 항공료 및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대상자를 공모하여 7~8월에 선발, 사전 교육을 거친 뒤 9월에 6개월 기간으로 파견됩니다. 2006년에 6명, 2007년에 10명이 인턴십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인턴십은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지역의 대학이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희는 이외에도 재학생들의 해외봉사단 파견 등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 국제인증제를 시행합니다

공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학도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학교육과정의 국제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지난해 워싱턴어코드 정회원으로서 가입함으로써 ABEEK를 통해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인증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졸업생은 모든 회원국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보장받게 됩니다.

2004년 공학교육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 이래, 2006학년도부터 공학계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학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지난해 산업자원부로부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됐고, 2008년 12월 ABEEK의 공학교육인증 최종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늘고, 해외 파견 교환학생도 늘었습니다

경희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 그리고 경희가 외국으로 파견하는 교환 학생은 모두 경희의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2007년 외국인 교환학생은 모두 1,754명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3위에 이릅니다. 현재 경희에서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은 680명, 해외에 파견한 교환학생은 447명으로, 외국인 학생 수와 해외 파견 재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파견 교환학생 수를 대폭 늘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화전문위원회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편입학제, 9월 입학제, 외국인 기숙 멘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사무소를 설치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을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자비유학 학점 인정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파견되는 교환학생들이 파견 대학 인근의 NGO에 인턴 기자로 활동하는 '글로벌 대학생 인턴기자' 프로그램을 '시민사회신문'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열어갑니다

차이와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이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학문과 사회가 창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천의 조화를 통해 경희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나눔·공헌·기여를 지구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대학문화가 요청됩니다. 우선 대학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화합의 대학 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창학 60주년은 대학문화의 안과 밖을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학문화의 새로운 전환점, 창학 60주년

경희60주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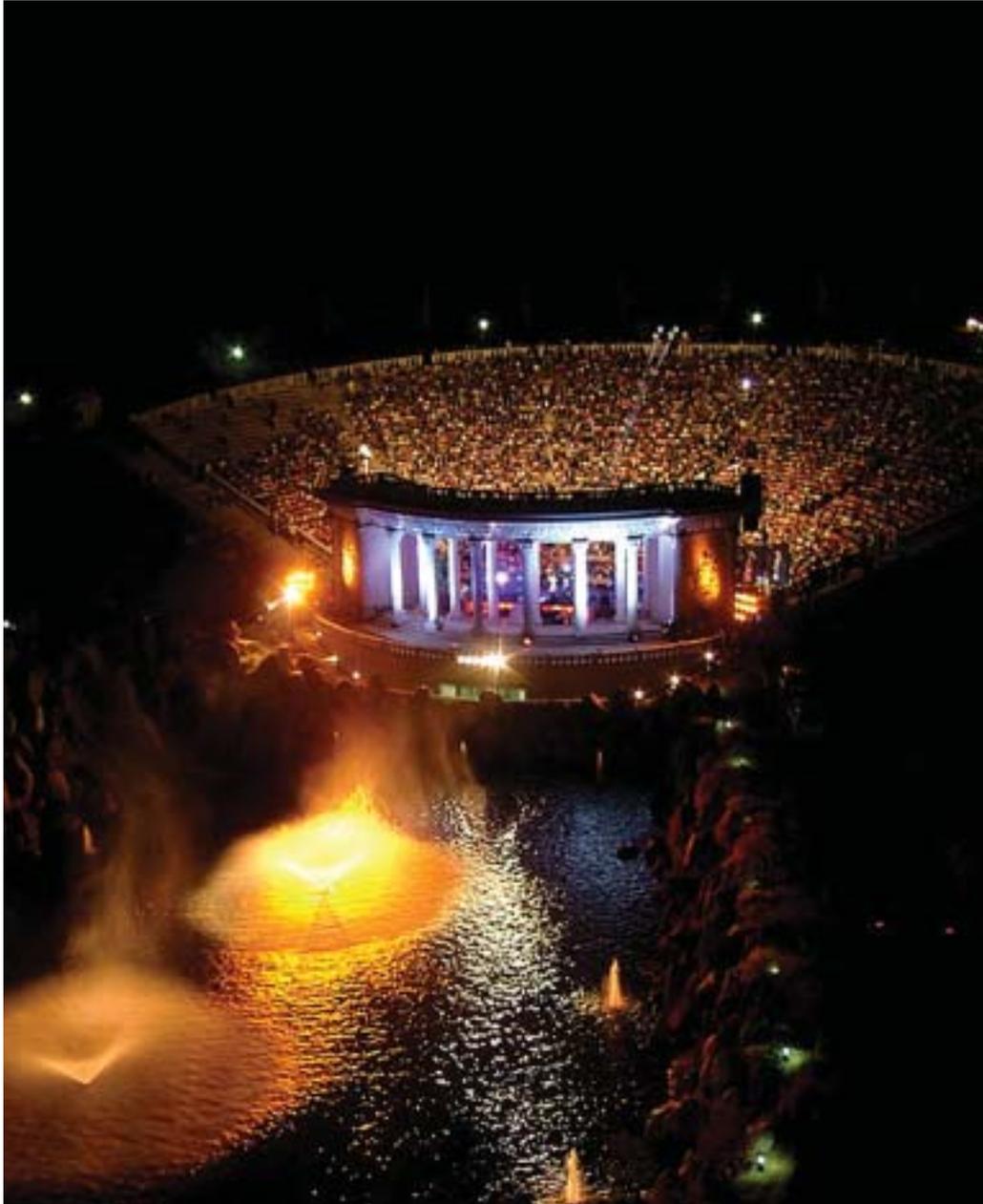
1949년~2009년, 경희의 60주년은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는 뜻 깊은 전환점입니다. 제2의 도약의 키워드인 '학문과 평화', 미래창조의 길은 경희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의미합니다. 경희의 60주년은 대학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 5월, 5개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로 구성된 60주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에 1차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사 편찬을 필두로 학술, 문화예술, 사회공헌, 참여기획 등의 분야에서 총 27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2008년 2월까지 주요 사업안을 확정하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 로고 및 엠블렘을 결정한 다음,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기념사업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희 Spirits and Pride 프로젝트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경희정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경희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화합과 창조의 대학문화를 일구어나가려 합니다. 경희 Spirits and Pride 프로젝트는 경희 구성원의 범주를 보다 확대합니다. 경희 구성원은 물론 동문과 그 가족,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기획입니다.

2008년 3월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 연구, 실천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입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교수·교직원 연찬회, 총동문회의 '경희인의 밤' 등 거교적 행사에 축제의 성격을 부여하고, '경희가제트'(가칭)를 발간해 대학·동문·사회가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채널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희커뮤니케이션 21’을 개설했습니다

대학홈페이지는 또 다른 소통의 광장입니다. 경희는 기존의 대학홈페이지에 교무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해, 구성원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흐름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경희커뮤니케이션 21’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갖는 부서와 위원회 사이의 업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중장기 프로젝트 진척 상황도 전 구성원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의 새로운 소통 네트워크인 ‘경희커뮤니케이션 21’은 대학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학의 또 다른 정체성, 사회공헌

지구공동사회의 랜드마크, UN평화공원 및 Global NGO Complex

학문적 연구와 대학의 교육은 사회 공헌과 지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역기능을 지적하고 현대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경희는 국제캠퍼스에 건립될 UN 평화공원과 글로벌 NGO센터(Global NGO Complex)를 '평화와 공영'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UN평화공원과 글로벌 NGO센터는 '학문과 평화'의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합니다. 창학 이래 경희는 연구, 교육,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모색하며 인류평화 구현을 위한 진취적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평화학술회의'를 198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매년 개최함으로써 '인간애, 인류애 구현'이라는 경희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UN 평화공원과 글로벌 NGO센터는 세계평화기념관, 평화의 광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기구와 정부, NGO, 기업, 학계 등이 평화와 공영의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관한 교류 협력을 펼치는 세계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World Civic Forum (WCF)

대학, 기업, 정부, NGO, 국제기구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multi-stake holders)가 모여 인성과 시민성, 공동체 질서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와 공영'의 미래문명을 열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도모합니다. 이 포럼을 통해 기존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이나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WSF)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시민가치, 시민교육, 시민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지구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의 준비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UN 경제사회국(DESA)과 2009년 공동 개최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MOU)를 체결했고, 2007년 6월에는 비엔나에서 개최한 '제7차 세계정부혁신포럼'에서 World Civic Forum(WCF)의 취지를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WCF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를 냉철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경희사회봉사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희의 사회공헌 역량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9일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경희 구성원 대표와 사회봉사 관계자들이 모여 '경희사회봉사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2007년 2월 26일 '경희학원 사회봉사 방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논의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발족된 '경희사회봉사네트워크'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사회공헌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족과 동시에 교수, 직원, 학생, 의료원 직원 등 350여명이 연합 봉사단을 구성하여 ‘태안군 기름 유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희사회봉사네트워크’는 정기적 공동사업의 추진, 구성원 간 연계 활동의 증진을 통해 대학 사회공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 국내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국가,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손잡고 사회 자원을 창출합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 한다.’ 경희는 국제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Kyung Hee Action for Community Partnership)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지역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연구, 문화와 환경, 의료와 복지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소프트웨어와 인적 역량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살고 싶은 지역 사회 만들기’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07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희 시민인문학 강좌’, ‘박물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연탐험’과 같은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 서비스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학생들이 지역의 취약 청소년을 가르치는 ‘방과 후 교사’, 2007년 12월에 진행한 ‘몰래 산타’, 연중 진행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해비타트’ 활동 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연대하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대전제로 하는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 자원을 형성할 것입니다.

나누고 사랑하는 365가지 방법 : One Fine Day

일 년 중 가장 기념하고 싶은 날을 선택해 그날 하루 자원봉사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 10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처음 실시한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 장터’, 재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등이 펼쳐졌습니다. 2007년 4월 13일에는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성년의 날’ 캠페인을 전개해 재학생들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2008년에는 ‘시민사회신문’ 등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One Fine Day’를 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단행본 및 영상물로 제작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온 라인으로 가능한 나눔 및 기부 제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영문 사이트를 구축해 세계의 시민들이 ‘One Fine Day’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연탐험

서울캠퍼스의 자연사박물관과 교육대학원이 기획, 운영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교육대학원의 미술관·박물관 전공 과정 학생 20여 명이 지도교수와 함께 개발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자연사박물관이 주관해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말 가족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환경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연중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역사박물관과 같은 경희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인문학 시민강좌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덜어주고,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 교육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과대학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07년 6월 서울 노원과 수원 지역 등의 자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강좌를 실시, 7월부터 12월까지 40여

명의 주민들이 인문학 강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

월 4일 법대 멀티미디어관에서 개최된 '제1

기 경희 시민인문학 강좌' 졸업식에는

졸업생 40명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이

를 계기로 대학과 지역의 소외계층이

인문학의 차원에서 서로 소통 가능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학 시민강좌는 대학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

입니다.





국제 NGO, 세계적 연구기관을 체험합니다

네오르네상스문명원이 주관하는 네오르네상스장학의 사회기여장학을 통해 216명의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 세계 20개국 NGO와 연구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은 국제 NGO와 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활동가를 인터뷰하고 활동 내용을 조사하며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전망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학기 초 네오르네상스문명원을 통해 참가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항공료와 현지 조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참가 학생들이 탐방 활동후에 제출한 보고서는 백서 형태로 출간돼 경희인의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경희-씨티그룹 NGO 인턴십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을 21세기 시민사회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이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동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국의 시민단체에서 2개월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NGO대학원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2007년 1~2월, 겨울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대학생 90여 명이 65개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씨티그룹과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와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 등이 참여해, 경희대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경희대 NGO대학원 내에 인턴십사무국을 설치하고 학계, 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희 글로벌 컴팩트 60'이 추진됩니다

2009년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희 글로벌 컴팩트 60'은 국제적 이슈를 발굴해 거교적인 캠페인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2007년 발족된 경희60주년위원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모금 운동과 UCC공모전을 펼치는 한편, 대규모 해외봉사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 등이 동참하는 인류사회 공헌 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과학(Medical Science) 경희’의 사명, 인류 복리

경희의료원, 진료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의과대·한외과대·치과대 부속병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손꼽히는 경희의료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시설, 제도, 연구, 인력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진료와 연구의 수월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건축비 30여 억 원과 최첨단 내시경 장비를 비롯한 의료 장비 30여 억 원 등 총 60여 억 원을 투입한 최첨단 소화기센터를 의료원 중정에 개설, 최적의(One-stop)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센터는 개소 이후 하루 평균 환자가 80% 이상 증가하는 가시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6년 설립한 암센터는 지난해 암환자가 내원 당일 해당 전문과목 교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환자의 진료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6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방사선 암치료장비를 하나로 집약한 최첨단 암치료기인 ‘토모테라피’를 도입,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경외과, 안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심장혈관센터, 수술실 등에서 최첨단 진료 장비를 도입, 진료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쾌적한 병상 생활을 위해 8개의 병동을 개수하고, 주차 건물을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했습니다. 의료원 내에 전문식당가, 편의점 등을 유치하는 한편 각종 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원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에도 주력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뉴패러다임센터와 연계해 ‘경희의료원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구성원과 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생동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임상연구소에 이어, 순환기내과·흉부외과·혈관외과·영상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심혈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외과대학부속 한방병원은 진료와 연구, 교육 분야에서 한의학과 한방병원의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은 한약물연구소를 통해 지난 해 청인트로키·원기생맥산 등 6종의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현재 가미쌍화탕·유풍단 등 250여 종의 한약예제제를 조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국제한의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속 치과병원은 2007년 4월 초음파진단기와 수면다원검사기, 물방울레이저 등을 도입해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플란트센터 및 심미수복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2008년 ‘전국 5대 병원 진입’을 목표로 진료와 경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개념의 종합병원, 동서신의학병원

동서신의학병원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동서의학대학원 등 의학계열 전문 분야가 상호 협력하여 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신 개념의 종합병원으로 '병원의 새로운 이상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2007년을 신의학의 이념과 사상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신 종합의료정보시스템(EMR)을 구축했습니다.

진료 분야에서는 3.0 MRI, 64 MD CT, 심장·혈관 디지털영상 검사장비, 치과대학 전용 CT 등 최첨단 장비의 운영이 정착되었고, f-MRI, 극냉동치료술, 인공와우수술법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로봇 및 네비게이션 수술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 1주년 기념으로 병원 및 센터 별 학술 행사를 11회 개최했으며 SCI 등재논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환자 마일리지제도를 실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학강좌(주 1회), 건강박람회, 음악회와 전시회(월 1회), 영화감상회(주 1회) 등을 개최해 문화센터로서의 병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3의료원을 설립합니다

경희의료원, 경희동서신학병원에 이어 2011년 국제캠퍼스에 건립되는 '제3의료원'(가칭)은 경희의 의료와 연구 역량이 집약된 동아시아의 허브 병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3의료원은 양방과 한방의 뛰어난 성과를 결합하여 진료하는 종합 병원으로, 생명과학, 동서의학, 동서의료공학이 교류하는 학제 간 연구, 즉 의학 클러스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경희 의과학이 최첨단 의료 시설과 만나게 될 제3의료원은 1,200개의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수원, 용인, 동탄 신도시의 200만 지역 주민들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 의과학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2도약의 두 기반

자율 운영과 캠퍼스 인프라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학문풍토와 자율적인 대학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창조와 자율, 신속성과 능동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확실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자율성과 책임을 극대화하여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대학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단과대학과 대학원, 행정부서가 각기 특수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활기찬 대학은 새롭게 조성되는 최적의 연구 교육 인프라와 더불어 경희를 21세기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 : 단위기관이 주인입니다

현대의 대학 행정은 다원적이고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역동성을 요구합니다. 분권화와 전문화, 인적자원 관리로 이루어지는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는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 주어진 권리와 책임 아래 의사결정과 책임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대학본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평가, 보상한다’는 기본 개념 아래 추진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는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경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는 2008년 2학기에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2009년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2010년부터 전 대학(원)과 부속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전 계획, 예산, 운영의 분권화

단위기관 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는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 단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세계적인 대학, 기관을 지향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학(원) 및 단위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학교 전체의 발전 전략·경영목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수립됩니다.

2008년 2학기에 서울캠퍼스의 간호대, 경영대(국제경영학부 포함), 약학대, 호텔관광대, 국제캠퍼스의 토목건축대, 환경



응용화학대, 국제학부 등이 새로운 운영체계의 1단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발전계획, 교육과정, 인사와 학사, 예산 등의 분야에서 자율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자율운영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새로운 운영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단위 기간이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단위기관 별 예산은 대학의 중장기 재무계획의 범위 안에서, 본부 예산부서와 논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자율운영체계 도입 이전에는 단과대학 예산이 등록금 수입에서 지원되었지만, 새 운영체계가 시행되면 등록금 수입의 일부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추가 지원됩니다. 새 운영체계에서는 단과대학 추진 사업에 대한 기존의 심의제도가 폐지됩니다. 또한 2009년도 1학기에는 예산 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단과대 전체 수입에서 간접 경비를 뺀 자율 예산액이 배정되고, 예산도 1년 단위에서 다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2008년 2학기 1단계 시범 운영 단계에서 자율 예산의 규모는 단과대학의 정규·비정규 교직원 인건비, 해당 학년도 예산 기준 등록금 수입의 일정 비율, 자체 발전기금 적립금의 일정 비율, 수익 사업 등 자체 자원 조달분, 등록금 차등 인상분, 특별 지원 예산 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운영체계가 거교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맞추어 2009년 2학기에는 예산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분석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통합재무관리 기능이 정착될 것입니다.



학사와 인사 업무가 대폭 이양됩니다

자율운영체계의 1단계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대학 발전계획과 해외교류 사업을 비롯해 신입교원 채용, 교원의 대외기관 겸직, 교원 해외여행, 시간강사 위촉, 조교 발령, 영어강의 지원, 부전공 관리, 학업우수자 시상, 공간조정 등 학사·인사와 관련된 14개 업무가 대학(원)으로 위임됩니다. 2009년 1학기, 자율 운영 체계가 확대되는 2단계부터는 교원 승진과 재임용, 비전임교원 채용, 편입학 학점 인정, 교육과정 및 시수 관리, 교원 출장, 졸업 등의 업무를 각 대학(원)에서 처리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 체계가 시행되면 총장이 결정했던 전결 중수가 14%에서 10%로 감소되고, 부서장의 전결 중수가 53%에서 51%로 감소하는 반면, 부총장의 전결 중수는 20%에서 23%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문서의 결재가 계원-계장-과(팀)장-부처장-처(관, 부, 국, 원, 소)장-부총장-총장 순으로 진행되던 것에서 전결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맡았던 문서의 심의는 전결권자의 결재로 대신하게 돼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가 확대됩니다.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중앙부서의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유연한 편제와 효율적 행정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총장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본·추경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하고 발전 계획 및 당해 년도 실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외에도 학칙 및 정관의 제정 및 개정, 평가 및 감사 결과 보고, 대학평의원회 운영 결과 보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 및 재무 계획 수립, 제 보수의 책정, 캠퍼스 종합 개발 및 자원 조달 계획 및 수립, 부총장 평가 그리고 기타 거교적 차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의 부총장, 의무 부총장, 정책·대외부총장의 업무 분장도 새로워집니다. 캠퍼스 별 부총장 소속 체제가 업무영역 부총장 소속 체제로 변경됩니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의 부총장은 각 캠퍼스의 발전 계획과 예산을 심의 조정하고, 학무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정책·대외부총장은 대학 종합 발전 계획과 평가 및 자율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대외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거교적 차원의 대학 발전 기금과 프로젝트 기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기획조정실은 폐지하고 재정·예산 부총장을 신설합니다. 재정·예산 부총장은 대학의 재무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확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대학 총괄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대학의 투자전략과 자산 관리, 학교기업 등의 수익 사업 등을 총괄하는 한편 캠퍼스 종합 개발과 자원 조성을 담당합니다. 의무부총장은 의학계열의 독립과 아울러 의학계열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앙부서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 통합조정위원회와 통합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평가와 보상·지원체계를 합리화합니다

대학 행정은 '제도와 사람'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합리적인 인사 관리 제도를 통해 능동적이고도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신명나는 행정부서를 만들어 갑니다. 우선 전문적 역량과 열정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교무위원, 교직원의 재교육 프로그램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는 연구 조사·어학·문화탐방 등의 분야에서 연간 40 여 명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해외 우수대학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11명의 교직원이 미국을 방문했고, 5개 팀 10 명이 해외 문화 탐방을, 2명이 어학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최적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캠퍼스는 구성원의 생활 공간이자 대학의 얼굴이며 상징입니다. 캠퍼스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천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경희는 세계적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은 곧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그 자체로서 학문과 문화예술의 요람인 캠퍼스를 조성해 연구와 교육, 실천의 효율성과 문화적 역동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연구하고 가르치고 함께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21세기 '꿈의 대학'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캠퍼스가 다시 태어납니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비전선포식과 함께 국제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제캠퍼스는 연구단지, 산학협력관, 제3의료원이 들어서는 연구복합단지와 UN 평화공원, 국제NGO센터, 평화박물관,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국제문화교류단지, 종합체육관과 운동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복합단지 등으로 공간을 조정할 것입니다.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쾌적한 교육·연구·실천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첨단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체육 실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복합 단지를 마련합니다.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2007년에는 그 시작으로 제2기숙사와 예술디자인대학을 준공했습니다. 서울캠퍼스도 획기적으로 변모합니다. 학문적 권위를 재건하며 대학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희정신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보존하고, 성장과 발전의 의지를 담은 신축 건물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를 만들 것입니다. 2009년부터 실행에 들어가는 서울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창학기념관을 비롯해 한의과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정경대학, 간호과학대학의 5개 단과대학과 중앙도서관, 산학협력관, 유스호스텔·문화예술복합공간, 체육·복지 공간 등을 신축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합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 5월 경영대학관 및 국제회관이 완공됩니다.

경희정신의 산실, 창학기념관을 건립합니다

2009년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창학기념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로 압축할 수 있는 경희의 창학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경희 역사의 산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창학기념관은 교사 자료실, 박물관, 회의장 세미나실 등 약 2천 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개교 60주년인 2009년 하반기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린캠퍼스 캠페인을 펼칩니다

캠퍼스 내의 각종 게시물, 부착물, 플래카드 등을 새롭게 정돈하여 품격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7년 11월부터 정문-교시탑-본관 구간의 플래카드를 최소화하기 시작했고, 경희의료원도 게시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및 의료원의 입간판, 플래카드, 부착물 등 게시물 일체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대학 이미지 통합(UI)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내 게시물의 규격, 시안, 게시 절차, 게시 기간, 담당 부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교내 게시물 디자인을 자문하고, 문화홍보처에서 교내 게시물 관리를 담당할 것입니다. 2008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클린캠퍼스 캠페인은 학생지원처, 총학생회, 대학원, 대학원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대학주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간미술, ‘걷고 싶은 거리’

선동호에서 선금교를 거쳐 미술대학에 이르는 약 1,200m의 숲길이 공공미술 개념에 의해 ‘걷고 싶은 거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선동호 일대는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캠퍼스의 허파’와 같은 곳으로, 서울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보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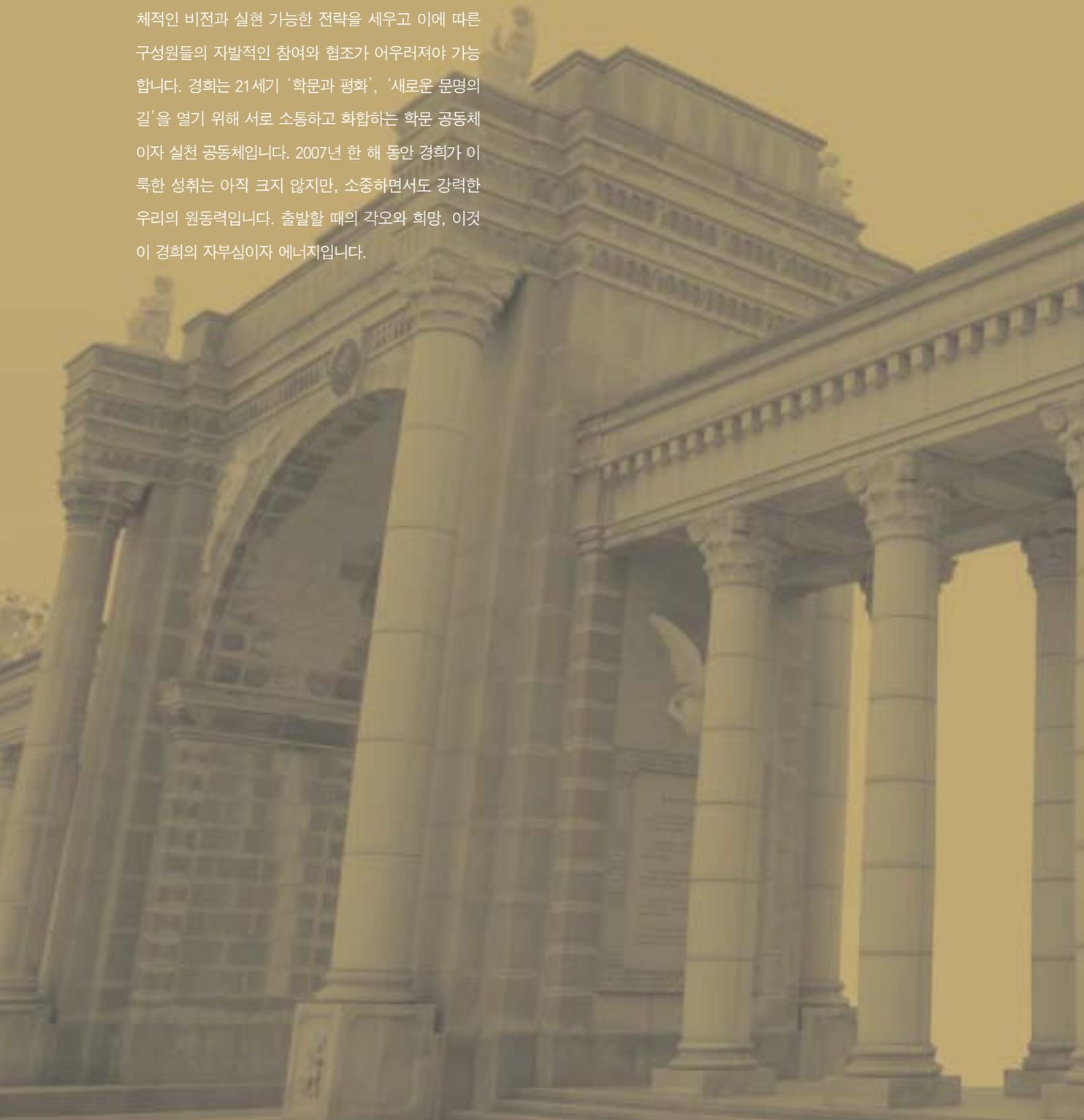
미술대학 현대미술연구소가 선동호 일대와 선동호에서 선금교에 이르는 도로 주변에 조형물, 입간교실, 벽천(인공시냇물)을 설치해 경희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며 사색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설계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선동호 일대의 ‘꿈의 공간’, 벽천에서 선금교에 이르는 ‘소통과 융합의 공간’ 그리고 선금교에서 야외조각장까지의 ‘사색과 창조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창조하며 전진하는 경희

‘학문의 미래를 여는 대학’, ‘평화로운 인류 사회를 구현하는 대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경희는 21세기 ‘학문과 평화’,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학문 공동체이자 실천 공동체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경희가 이룩한 성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소중하면서도 강력한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출발할 때의 각오와 희망, 이것이 경희의 자부심이자 에너지입니다.







함께 열어나가는 경희의 미래

2007년 한 해 동안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대학평가, 발전기금 모금, 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같은 성취는 대학이 결코 닫힌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새삼 돌이켜보게 합니다. 경희가 연구와 교육 못지않게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의 성과는 실천을 통해 사회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경희의 실천은 시대와 역사, 나아가 문명과의 대화입니다.

경희역사의 창조적 계승, '경희 발전 계획'

경희는 1988년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1994년 '대학발전 6대 기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1999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A.T.Kearney와 공동으로 '경희 비전 2000'을 수립했습니다. '경희 비전 2000'은 대학역량 강화 전략과 특성화 중심의 학문단위 역량 강화 전략을 두 개의 축으로 삼고, 각 전략별 실행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7년 조인원 총장은 21세기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개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학문과 평화', '새로운 문명의 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

사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발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기획위원회 사무국과 연구조직인 자율운영지원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문화기획위원회 등을 설립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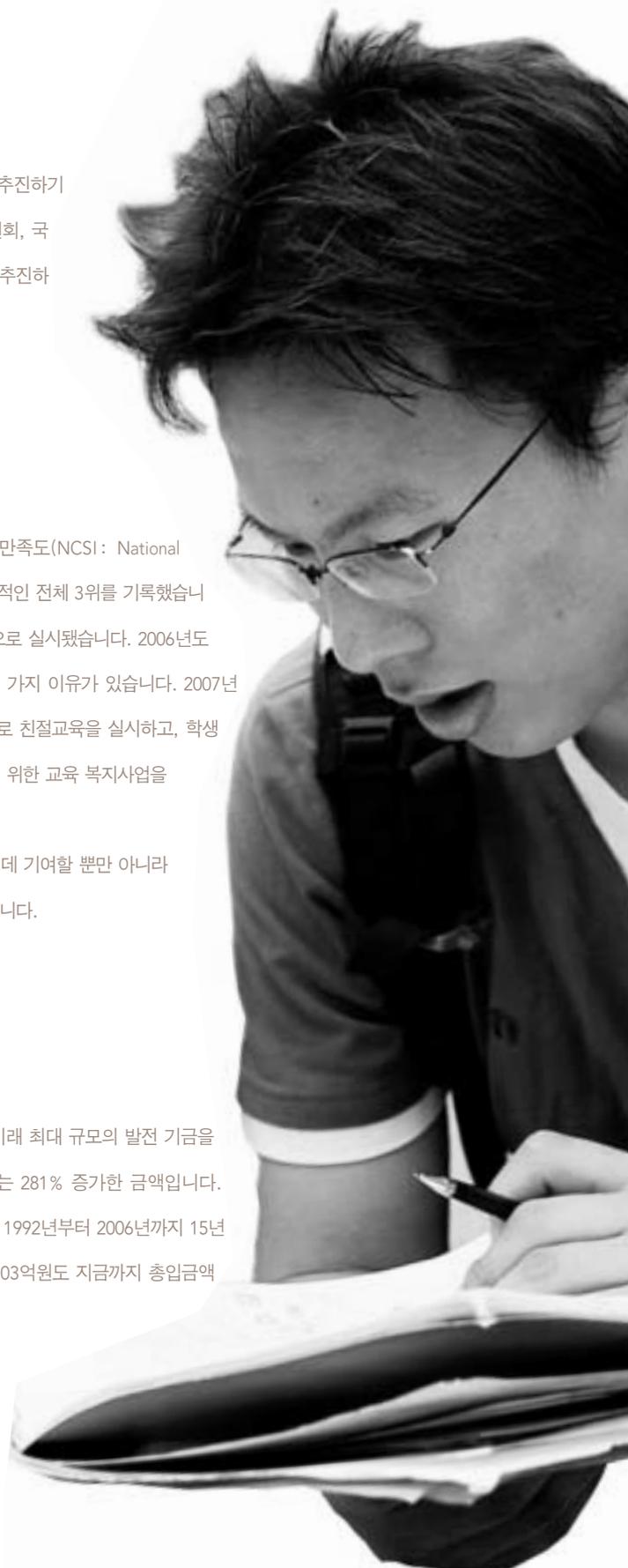
2007 국가고객만족도, 경희대 3위

조선일보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주관하는 2007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경희대가 조사 이래 최고 성적인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희대를 포함해 서울 소재 11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10위였던 경희대가 7단계 상승한 3위로 오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대학 자체 고객만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기능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경희의 대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창학 60주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발전기금 모금, 229억 원

약정액 229억5천만 원, 입금액 103억원. 2007년 한 해 동안,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발전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약정액으로는 499%, 입금액으로는 281% 증가한 금액입니다. 2007년 약정액 229억원은 경희가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 동안의 총약정액 324억원의 약 70%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입금액 103억 원도 지금까지 총입금액 264억원의 3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기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우선, 2007년 세계적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기업체의 기부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 교수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섰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 운영 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단과대학 별로 동문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발전 기금 모금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대외협력처와 총동문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모금과 함께, 안정적인 기금 모금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클럽을 만들 것입니다. 동문회 차원의 후배사랑 장학기금 운동 등 본부 차원의 노력은 물론, 예우 프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기부자들이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과대학 및 관련부서도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모금 규모와 창구를 확대할 것입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학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로스쿨 개설 여부와 규모에 따라 대학의 대외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희는 세계적 수준의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04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로스쿨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법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2007년 8월과 11월 워크숍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30일 글로벌 국제·기업 법무를 특성화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27일 현지 조사 평가에 이어, 2008년 2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로스쿨 설립 예비 인가(정원 60명)를 받았습니다. 로스쿨은 오는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받고, 2009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습니다. 앞으로 경희대 로스쿨은 세계적인 석학 영입,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제기업법무 분야의 '세계적인 명문 로스쿨'을 지향할 것입니다.



의학계열 신진연구자 특별지원사업, 조기 정착

의무부총장 산하에 신설된 의학계열거버넌스위원회는 창학 60주년에 즈음하여 의학계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학계열 신진연구자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2010년 8월말까지 3차 년도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부교수급 이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협력연구와 임상연구로 나누어 1년간 SCI(또는 SCIE)에 게재된 논문 1편 당 1,500만원, 임상연구의 경우 연구조원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07년 1차년도 사업에는 총 116편의 과제가 접수되어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책임자 기준 전임교원의 과제참여율이 단과대학 별로 고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단독연구보다 협력연계 연구 분야가 34개 과제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등 6개 의학 분야가 공존하는 경희만의 특징을 살려 대외(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학계열 행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이어, 의학계열 거버넌스에서 선정한 중점유망 분야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해 의학계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 진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한국 의학의 지속적인 진흥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2004년 4월 30일 167명을 창립 정회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 전국 286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희대학에서는 창립회원으로 김명재(신장내과학), 이정일(소화기내과학), 신광일(마취과학), 장성구(비뇨기과학), 박용구(병리과학)교수가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 정경천(신경과학), 배종우(소아과학)교수가 선정된 데 이어 2007년도에는 정사준(소아과학)교수가 정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문분야 별 평가: 행정학, 수학, 무역학 '최우수', 음악학·간호학 '우수', 공학계열 '가등급'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한 '8개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경희대 행정학, 수학, 무역학 전공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음악학과와 간호학과의 종합 '우수'를, 전자전파공학과와 컴퓨터공학 전공이 가등급(최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학 전공은 평가 지표였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학과는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교수,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발전계획 등 5개의 항목에서 종합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호학과는 교육성과 및 개선 노력, 학생, 교수업적, 시설 및 자원, 행정 및 재정 영역에서 '최우수'를, 교육과정 및 이론 교육, 실습 교육, 교수확보 영역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공학평가센터가 시행한 공학계열 분야 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자전파공학과와 컴퓨터공학 전공은 학과(부)의 교육목표, 학과(부) 학습 성과 및 평가, 교과 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 환경 등 6가지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위 학과(부)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학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2007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수연구부문, 약학과·물리학과 1위

200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가운데 약학 관련 학문분야 평가에서 약학과가 교수연구실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리학과도 교수 논문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약학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를 이룬 좋은 사례입니다. 합성물이 아닌 천연물에 비중을 두는 동시에 양약과 한약을 포괄하는 통합약학 연구를 추진, 세계 약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학과는 교수진의 연구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자재를 원활히 공급하는 등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점을 교류하는 해외 자매 대학을 늘려 약학도들의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교수연구(교수논문실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물리학과는 기초학문 분야에서 기존 상위대학을 뛰어넘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학과는 교수연구 이외에 교육 여건, 학생 성과, 평판도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향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교수진 활발한 학술활동 펼쳐

2007년도 경희 교수진의 학술활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2007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경제학과 부문에서 경희대 경제학부 김정유 교수가 '논문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교수는 36개 대학 508명의 교수 중에서 해외 유력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2004년 이후 3년 동안 김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모두 12편. 그 중 10편이 SSCI급 해외 학술지에 수록되었습니다. 경희의 학문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호텔경영학과 최정길 교수가 2007년 세계 경영 학술대회(GBATA)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40여국 학자들이 참여했고, 모두 17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경희의 학문세계를 열어가는 훌륭한 연구 업적은 이외에도 NGO대학원 김상준 교수의 한국사회학회 논문상 수상, 컴퓨터 공학과 홍충선 교수의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상 수상,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효종 교수의 <Cell>지 논문 등재, 침구 경락과학연구센터장 이해정 교수의 SCI급 저널 <Neurological Research>의 한의학 관련 특집호 발간, 그리고 의과대학 김성수 교수의 항암제 내성 극복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준 교수 등 4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경희대 우주과학과 김상준 교수, 의과대학 박용구 교수, 한의대 이해정 교수, 약학대학 정서영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명예의 전당'인 한림원은 국내 최고의 석학들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자 모임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까지 경희대 교수 중 한림원 정회원인 교수는 모두 10명으로 타 대학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우주과학과 김상준 교수는 미국 NASA 우주비행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태양계 분야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김교수는 목성의 새로운 성분과 적외선 오로라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의과대학 박용구 교수는 골종양 및 대사성 골 질환과 연부 조직 종양에 관한 연구에 전념해온 병리학자입니다. 한의사 최초로 정회원이 된 한의대 이해정 교수는 한의학적 침구치료 효능 및 작용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센터(SRC)사업의 일환인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정서영 교수는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꿈의 방사선 암 치료기, '토모테라피' 본격 가동

경희의료원은 기존의 모든 암 방사선 치료기의 장점을 하나로 집약한 최첨단 장비 '토모테라피'를 도입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토모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은 크기와 모양, 개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암 세포를 한꺼번에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토모테라피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CT 화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종양의 위치를 모든 방향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방사선을 집중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MRT)보다 더 정밀해서, 현존하는 방사선 치료기 중 최고의 장비로 꼽힙니다. 토모테라피는 모든 암에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뇌종양, 두경부종양, 척추종양, 전립선암, 폐암, 간암, 혈액종양, 뇌혈관질환 등에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치료 회수와 치료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동문회, 장학재단 기금 총 26억5천만원

총동문회는 1999년 재단법인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2007년 말 현재 26억5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재단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학부 재학생 30여 명에게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생에게도 300만 원씩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관리, 동문회보 발행, 홈페이지 운영, 동문주소록, 동문 ID카드 발급 등 상시 업무와 경희인상 시상, 경희인의 밤, 간담회, 모교 발전기금 모금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총동문회는 지난해 10월 국제캠퍼스 명명식을 기념하는 경희가족 걷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총동문회는 모교 교수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개교 60주년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교육·연구·실천 네트워크, 경희 글로벌 스튜디오

경희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글로벌 스튜디오입니다. 전 세계의 학술, 문화, 새로운 문명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튜디오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희의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재계, 정관계 관련 인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연구·실천 협력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튜디오는 미래 학문과 산업 그리고 문명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창조하는 실천적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 과정과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들을 지식과 정보, 문화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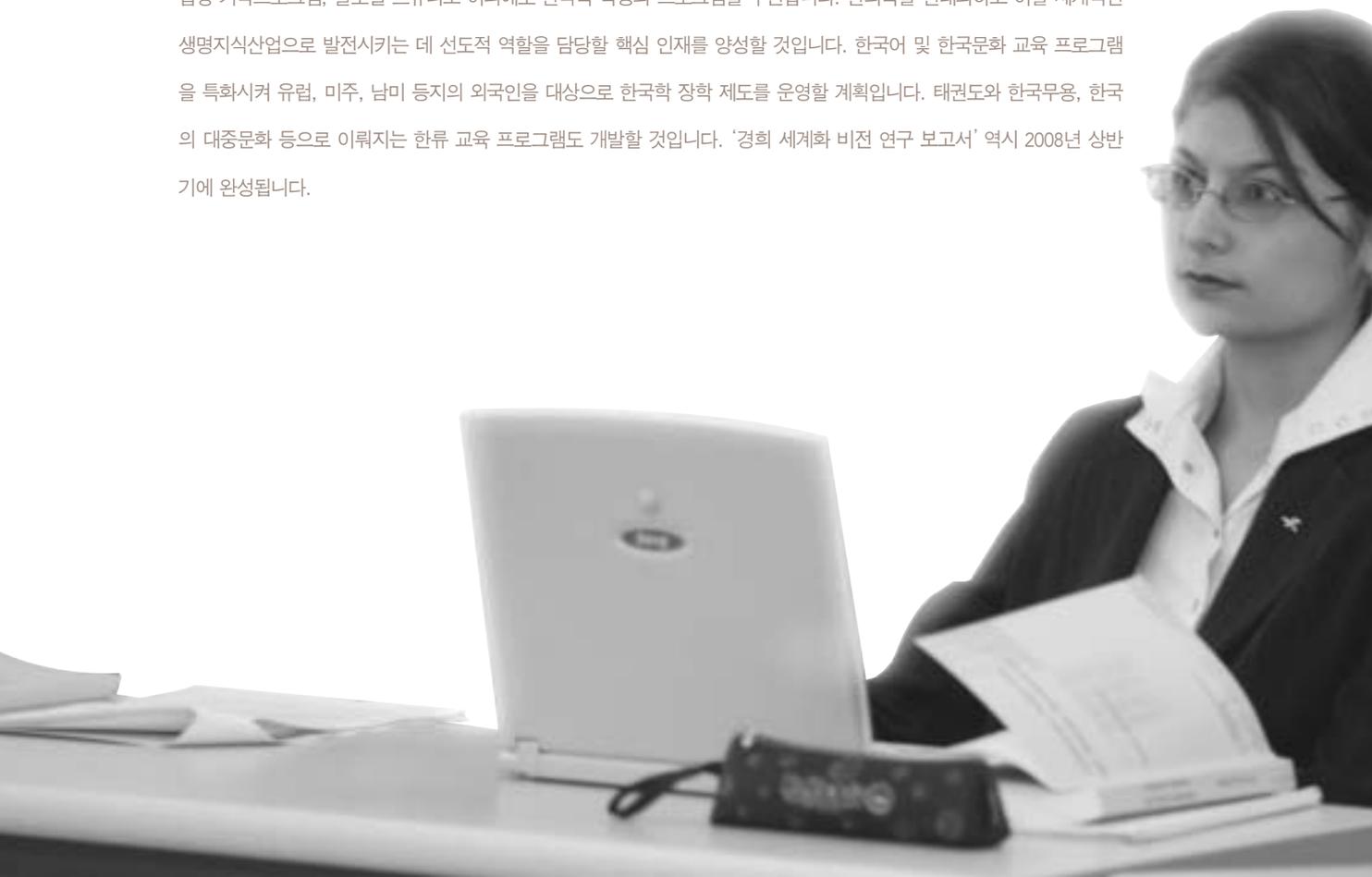
글로벌 스튜디오는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 그리고 국제 교류협력사업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 별 세미나와 국제학술회의 등을 교류 채널로 활용해 21세기 경희의 세계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행정·복지 부문 선진화, 경희의 세계화 구상

세계적인 명문사학은 연구와 교육, 실천 부분의 혁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체계와 복지 정책 또한 선진화를 이루며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행정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가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은 자기 개발, 건강 관리, 생활 안정, 사회 공헌 등을 지향합니다. 산발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모든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켜,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할 것입니다. 복지개선 정책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2008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경희는 전통적인 '장소로서의 대학' '배타적 학문세계'를 뛰어넘어 현실과 가상, 기초와 응용, 이론과 실천이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희의 세계화 비전 구상을 축으로 앞에서 소개한 교양교육과정 개편과 몰입형 기숙프로그램, 글로벌 스튜디오 이외에도 한국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한의학을 현대화하고 이를 세계적인 생명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유럽, 미주, 남미 등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학 장학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권도와 한국무용, 한국의 대중문화 등으로 이뤄지는 한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입니다. '경희 세계화 비전 연구 보고서' 역시 2008년 상반기에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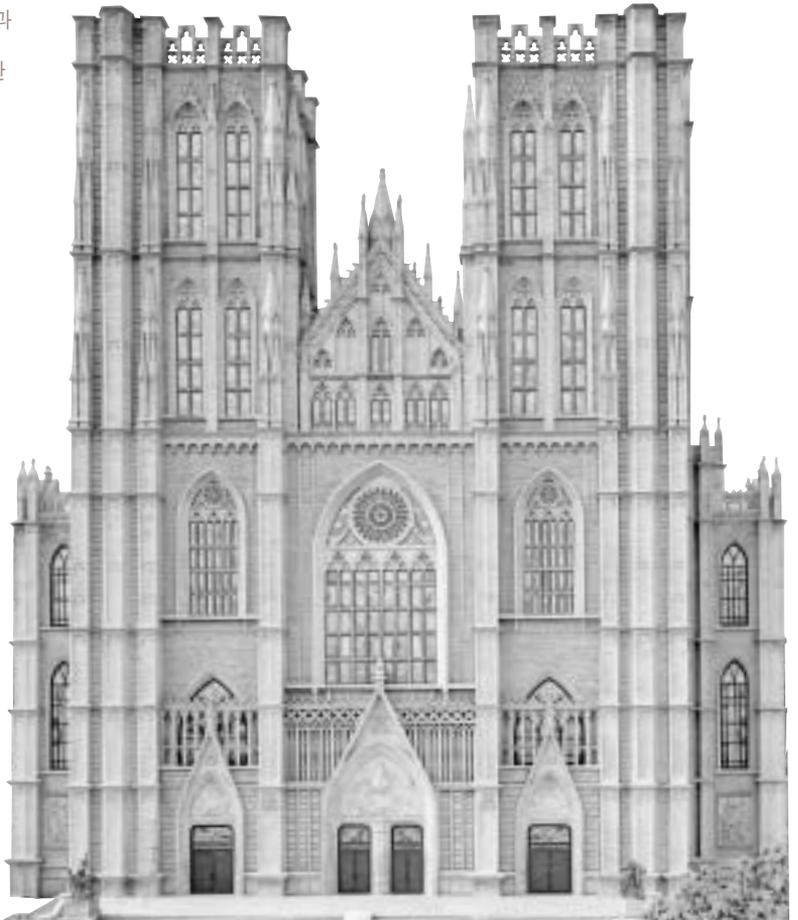
미래 학문 선도할 프로젝트 <창조 21>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고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해 경희가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급변하는 문화, 기업, 기술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융합 연구를 지향하고, 연구·교육·실천의 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합니다. <창조21>의 최종 목표는 세계 굴지, 초유의 창의적인 융합연구와 복합교육, 실천 학문의 정착을 통해 미래 지향의 학술 프로그램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2007년 9월 <창조 21> 사업을 공표하고 2008년 3~5월 1차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1차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5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조 21>은 두 개 이상의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외부 학자도 팀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계획서에는 연구·교육·실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 주제와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실천 프로그램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분야 조사, 분석에 대한 계획과 전체 추진 일정 그리고 참여자의 관련 실적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연구·교육·실천 프로그램의 문제의식과 창의성, <창조 21>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정합성, 연구의 실현 가능성 등입니다.



총장 365일

“대학 비전 설정과 내부의 소통과 화합에 주력한 한 해”

2006년 12월 취임한 조인원 총장은 지난 한 해 대학운영의 비전을 설정하고, 제2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과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새로운 회의 방식과 면담 방식, 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취임 1년간, 조총장은 비전설정과 함께 새로운 발전정책 수립, 행정체계 개선,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및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주력하고, 소통하는 대학문화 정착을 위해 교수협의회, 대학 노동조합, 의료원 노동조합,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국제 총학생회 대표 등과 총 24회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 업무와 관련해 총 931회의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공식·비공식 회의 306회

리더십회의, 교무위원회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부속기관, 의료기관 간담회
각 부서장 및 부서 공식 업무 보고
대학 구성원 대표 간담회

면담 370회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실무 부서장 등 면담

행사 182회

교내·외 공식행사, 오찬, 만찬
총동문회 관련 행사

교외 인사 접견 63회

정·관·재·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UN, CONGO(Conference of NGOs) 등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 협약 체결 관련 인사

언론 인터뷰 9회

대학주보 | University Life | VOU | 인터넷 Future 경희 등 교내 언론매체

동아일보 | 문화일보 | The Korea Times | 월간조선 등

해외 출장 1회

목적 | UN DESA 주최 제7차 글로벌 정부혁신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

장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

기간 | 2007. 6. 24(일)~6. 30(토), 6박 7일

주요 활동

Plenary Session 기조연설 | 신뢰와 거버넌스 : '트랜스버시티' 가능성(Trust and Governance : A Transversity Possibility)

UN DESA, CIVICUS 등 World Civic Forum 협력 유관 기관장 접견

통계로 본 경희 2007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07. 10. 1 기준

예산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6. 2. 28	2007. 3. 1
서울	교비회계	2,155	2,007
	산협단회계	456	433
	계	2,611	2,440
국제	교비회계	1,464	1,542
	산협단회계	407	443
	계	1,871	1,985
소계		4,482	4,425
경희의료원		2,254	2,352
동서신의학병원		1,416	1,224
소계		3,670	3,576
총계		8,152	8,001

교원 및 교직원 현황

전임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교수	375	203	578
부교수	142	77	219
조교수	188	100	288
전임강사	79	31	110
총 교원수	784	411	1,195

대학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사무직	175	155	330
기술직	19	27	46
기능직	76	54	130
연구직	7	3	10
고용직	3	2	5
총계	280	241	521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사무직	172	97
간호직	701	460
기능직	567	442
기타	285	202
총계	1,725	1,201

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1,869	10,952	22,821
대학원 (전문, 특수포함)	4,579	1,617	6,196
총계	16,448	12,569	29,017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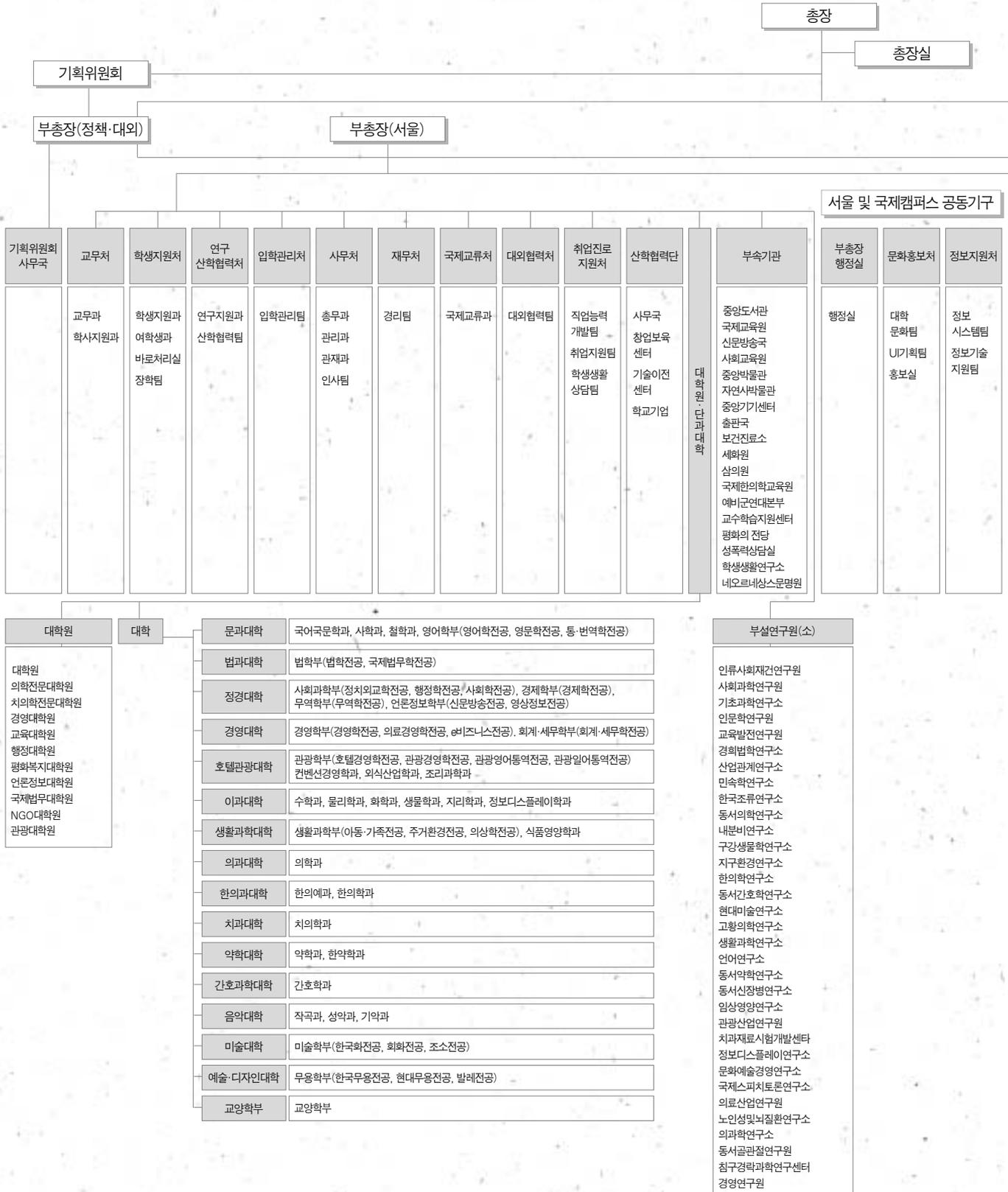
구분	내용
서울	81.4%(정규직:62.9%)
국제	81.3%(정규직:55.7%)
전국 순위	주요 대학 1위(B그룹*)

_B그룹(졸업자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_B그룹 순위: 전주대학교 84.4%(36.8%), 경희대학교(서울) 81.4%(62.9%), 경희대학교(국제) 81.3%(55.7%)

_교육인적자원부 발표 기준

경희대학교 조직도



부총장(국제)

부총장(의무)

부총장(재정 예산)

교무처	학생지원처	연구 산학협력처	입학관리처	사무처	재무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취업진로 지원처	산학협력단	대학원·간편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경희의료원	동서 신의학병원	재정예산원
교무과 학사지원과	학생지원과 여학생과 바로처리실 장학팀	연구지원과 산학협력팀	입학관리팀	총무과 관리과 관재과 인사팀	경리팀	국제교류과	대외협력팀	직업능력 개발팀 취업지원팀 학생생활 상담팀	사무국 창업보육 센터 기술이전 센터 학교기업		중앙도서관 신문방송국 평생교육원 보건진료소 생활관(애지원, 우정원) 체육부 체육교육과 공학교육혁신센터 우주과학교육관 연구 실험지원센터 예비군연대본부 교수학습지원센터 해정박물관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 병원 한양과대학 부속한방 병원	부속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법무감사팀 재정투자 전략팀 재무예산 관리팀 캠퍼스종합 개발팀

대학원	대학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학부 (전자·전파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정보공학전공, 물리및 응용물리전공, 수확및응용수확전공), 우주과학과, 동서의료공학과
		테크노공학대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원자력공학과
		환경·응용 화학대학	환경·응용화학부(화학공학전공, 화학및신소재과학전공,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고분자·섬유신소재전공)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유전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한방재료기공학전공, 생체시스템공학전공, 원예생명공학전공)
		토목·건축대학	건설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학과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국제학전공)
		외국어대학	유럽어학과군(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동아시아어학과군(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영미어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환경조경디자인전공, 의류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전공), 예술학부(Post Modern음악전공, 연극영화전공, 도예전공)
		체육대학	체육학부(체육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골프경영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태권도학과
		학부대학	교양학부, 동서의과학부, 자율전공학부

부설연구원(소)
아·태지역연구원 레이저공학연구소 산학협력기술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자연과학종합연구원 사회과학정책연구원 생명자원과학연구원 디자인연구원 스포츠과학연구원 다반ASIC설계센터 멀티미디어기술연구소 임피던스영상신기술연구소 영상정보소재기술연구소 해정문화연구소 디스플레이부품·소재지역 기술혁신센터

목련리포트

2008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디자인 (주)프레 어소시에이츠

인쇄 문성인쇄

발행일 2008년 2월 21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국

대표전화 02)961-0106

홈페이지 www.khup.com

이메일 khsd3080@khu.ac.kr

©경희대학교, 2008

ISBN 978-89-8222-328-0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